

서희, 싸우지 않고 강동6주를 획득한 탁월한 외교전략가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후리에는 우리 역사상 외교적으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서희 (942-998)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 기념물 제36호이다.

서희 묘역으로 가는 입구에는 서희의 신도비와 사적비가 방문자를 맞이한다. 상두산(象頭山) 서희 묘역은 전체적으로 3단 층계식으로 되어 있어 고려시대 묘제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묘소로 올라가는 첫 단은 네모진 빈 공간이다.

두 번째 단 좌우에는 문인석과 무인석이 양쪽으로 한 쌍씩 세워져 있고 무덤 앞에는 장명등(長明燈, 무덤 앞에 세우는 돌로 만든 등)이 자리한다.

맨 위 세 번째 단에는 서희의 묘와 부인 묘가 쌍분(雙墳)을 이루고 있으며 봉분 아래쪽은 2단 돌레돌(礎石, 능이나 묘의 봉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봉토 아래부분을 돌려 쌓는 돌)로 둘러쳐 있다.

적사각형 묘양의 쌍분 앞에는 각각 상석이 놓여 있고 쌍분 중앙에는 서희의 묘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묘비 1기가 1000년의 세월을 훌쩍 넘어 서 있다.

서희는 942년 고려와 거란 간 만부교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해에 태어났다.

만부교 사건은 태조 왕건이 거란이 외교 사절로 보낸 사신 30명을 섬에 유배시키고 낙랑 50필을 만부교 아래 매어 두었다 모두 굶겨 죽게 했던 사건이다.

이로써 왕건은 거란과 적대적 관계를 분명히 했다.

서희가 활동했던 10세기 동아시아 정세는 당(唐) 제국이 몰락(907)한 이후 파국 지대로 일어나 만주 일대를 장악한 거란과 중국 남방의 송(宋)나라(960) 그리고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936)가 각축전을 벌이는 형세였다.

거란은 송을 제압(991)하고 난 후 동아시아 최강의 패자로 등극했다. 거란의 다음 단계는 고려와 송의 관계를 사전에 차단시키고 고려를 복속시키는 것이 외교적 과제였다.

고려 또한 서경 이북지역에 성을 쌓으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사민정책으로 백성들을 이주시켜 영토화하는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었다. 마침내 거란은 성종 12년(998) 10월에 소손녕이 8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에 쳐들어 왔다. 거란의 제1차 침입이다.

두 나라 군사는 당시 동북아 최대의 전략적 요충지인 압록강 하구에서 대치했다. 거란군의 선봉은 고려 서북방 봉산군을 이미 기습 점령하고 고려군의 선봉장인 윤서인을 포로로 붙잡았다. 그리고 항복을 요구했다.

“대국 거란은 이미 고구려 옛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고려가 그 영토를 침범하므로 이에 정벌하러 온 것이다.” “거란은 사방을 통일했는데 아직 복속하지 않는 자는 기어이 소탕할 것이니 속히 항복하라.”(고려사 열전 서희전)

고려 조정은 먼저 이몽진을 대표로 보내 거란측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소손녕의 글을 본 서희는 80만 대군까지 이끌고 왔다면 항복하라고 엄포만 놓는 소손녕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그 틈새를 노리고 있었다.



서희장군은 시조 태사공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다. 서희장군의 묘소는 고려의 묘소 양식을 대표한다. 묘는 적사각형이고 묘역은 전체적으로 3단으로 조성되어 있다.

고려 성종은 조정 대신들을 소집하여 국가안보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적군이 우리 땅을 침략해 와서 국가의 안위와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이 경각에 달린 절체절명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신들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군사들을 이끌고 항복하자는 항복론과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 주자는 할지론(割地論)만이 난무했다.

이에 성종은 할지론으로 최종 결정한다. 더불어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쌀은 적의 식량으로 사용될까 두려워니 대동강에 모두 버리라고까지 지시한다.

이 처참한 현실 앞에서 이지백은 “한 사람의 충신도 없어서 갑자기 토지를 가버린 적에게 준다면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하며 할지론은 안된다고 임금에게 직언한다.

거란군은 이몽진이 돌아간 후에 고려로부터 아무런 회답이 없자 안용진으로 진격한다.

안용진 수비대 책임자는 발해 출신 중랑장 대도수였다. 안용진 부대는 처절한 싸움 끝에 거란군을 패퇴시키고 만다.

이때 서희는 성종에게 “우리 영토를 적에게 떼어주는 것은 만세의 치욕이 될 것입니다... 적과 더불어 한번 싸우게 한 뒤에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항복론도 아니고 할지론도 아닌 먼저 결사항전하고 나중에 협상하는 제3의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먹을 것이 부족하면 성(城)도 가히 지킬 것이고 싸움도 가히 이길 것”이라며 쌀도 못 버리게 한다. 이에 성종도 조정에서 대신들과 이미 결정한 정책을 뒤엎는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고뇌에 찬 결단이었으리라.

성종은 “누가 적진에 들어가 세치 혀(三寸舌)로 적군을 물리쳐 만세의 공을 세우겠느냐”고 묻는다. 대신 중에 응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서희만이 강화회담에 홀로 나서기를 자청한다.

서희의 회담 상대는 동아시아 군사대국의 백전노장 소손녕이었다. 소손녕은 나는 대국의 귀인이니 고려 사신은 절하라고 욕박지른다. 기선제압이었다. 서희는 양국의 대선이 서로 만나는 자리에서 그리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응수한다. 두 사람은 두세 번 기싸움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서희는 아예 속소에 들어가 누

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소손녕이 대등한 의전 절차에 동의하자 서희는 그때서야 담판에 들어갔다. 소손녕의 요구 사항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첫째, 너희는 신라를 계승했으니 옛 고구려의 영토는 거란에 속하므로 돌려줄 것. 둘째, 송과 단교하고 거란에 사대(事大)할 것. 서희는 소손녕의 전략을 간파했다. 사태를 보는 눈은 예리했고 머리는 냉철했다.

서희는 국호가 고려이고 고구려의 옛 수도 평양을 도읍으로 정한 이유가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그 명백한 증거라고 반박한다.

또한 여진이 가로막고 있는 압록강 주변의 땅을 고려에 주어야만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의 사대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협상안을 제시한다.

다시 말하면 서희는 소손녕에게 거란이 영토를 양보하면 고려는 사대의 대상을 바꿀 수 있다고 역제안한 것이다.

거란에게 사대라는 명분을 주고 고려는 영토라는 실리를 챙기는 고도의 전략이다. 외교의 기준은 국익이다.

결국 거란은 서희의 설득력 있는 논리에 강동6주를 내준다. 칼과 총으로 싸우지 않고 세치 혀로 강동6주를 획득한 쾌거였다.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한민족이 압록강까지 영토를 확장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래서 한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외교라고 가히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대도수의 승리와 서희의 굴복하지 않는 의기가 없었더라면 화친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적의 끝없는 요구를 채우느라 갖은 고난을 겪었을 것”이라는 안정복의 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방력은 외교, 경제 등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주변 강대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전략적 요충지이다. 서희가 활동했던 10세기도 마찬가지다.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 때문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또한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주변 강대국이 존속하고 강대국 간의 갈등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존속하는 한 역사는 되풀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가안



묘비의 봉분 아래 2단으로 두른 돌레석



신도비

보는 엄중하다.

강대국의 패권경쟁은 여전하다. 이런 동아시아 안보구조 속에서 남북분단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타개하고 평화질서를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서희의 탁월한 외교적 안목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강대국은 힘으로 존재하지만 약소국은 지혜가 있어야 생존한다. 국제질서는 생물이 아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는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희와 소손녕의 회담은 거란이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왕조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는 역사적 사례이자 설득력 있는 논리 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서희는 이천(利川) 사람이다. 이천시는 출중한 외교역량과 사명감으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창출했던 서희의 정신과 얼을 기리는 서희문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서희가 21세기 우리에게 준 외교적 유산은 무엇인가? 편집국장 권영환

대구중친회 어울림한마당 개최



대구중친회는 5월 26일 10시 대구 장애인종합복지관내 잔디구장에서 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어울림한마당은 혼자기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권문이어 함께 멀리가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단합을 과시했다. 이 슬로건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권오섭이 회장이 직접 들고 참석하신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권오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안동권씨라는 자부심을 갖고 죽친 간에 서로 단결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축사에서 권오섭 회장을 중심으로 어울림한마당을 마련해 준 임원과 죽친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가정과 직장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말했다. 명랑운동회에서는 제기차기, 2인3



권영진 대구시장(왼쪽)과 권오섭 회장(오른쪽)



가혼주기기부소에서 가혼을 일일회로 쓰고 있다.

각, 신발양궁, 장기자랑 등으로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했다. 특히 사업체 홍보 부스를 운영해 사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가혼주기기 부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평소 좋아하는 가혼을 받아 갔다.

안동팀, 경기도 수원 화성행궁 탐방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안동권씨대중회 정기총회를 마친 안동팀 30여 명은 전세 리무진버스를 타고 안동으로 내려가는 길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에 위치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수원화성의 화성행궁(華城行宮)을 탐방했다. 이날 안동으로 내려갈 시간이 빠듯해서 성곽구경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우선 화성행궁만 보기로 했다. 최은미 문화관광해설사의 인솔아래 설명을 들으면서 화성행궁을 약 1시간 30분 가량 돌아 보았다.

화성행궁의 정문인 신평루(新豐樓)의 신평이란 ‘임금님의 새로운 고향’이란 뜻 그대로 보존된 건축물인데 정조대왕이 참석한 가운데 신평루 앞에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죽을 끓여 먹는 진휼 행사가 있었다. 봉수당(奉壽堂)은 화성행궁의 정당(正堂)으로 정조대왕이 이 곳에서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回甲宴)을 열었으며 낙남헌(洛南軒)은 일제강점기에도 훼손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된 건축물인데 정조대왕은 이곳에서 특별과거시험과 양로연을 열었다. 노래당(老來堂)은 정조대왕이 왕위에서 물러나 노후생활을 꿈꾸며 지은 건물이다.

화성행궁은 효성이 지극했던 정조대왕은 아버지 장헌세자(사도세자)의 묘소를

현릉원(현 용릉)으로 옮기면서 수원 신도시를 건설하고 수원화성 성곽을 축조하면서 화성행궁을 건립했다. 평상시에는 수원부 관아로 사용되다가 정조대왕 행차 때에는 화성행궁에 머무르며 진찬연 및 과거시험 등 여러 행사를 거행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낙남헌을 제외한 시설이 일제의 민족문화와 역사 말살 정책에 시달렸다.

수원화성은 조선시대의 개혁 군주 정조대왕의 꿈이 담긴 성곽으로 길이는 약 5.7km로 우리나라 성곽 건축 사상 가장 독보적인 면모를 자랑한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파손 되었으나 축조 상황을 기록한 세계기록유산 ‘화성성역의궤’에 의거, 1975년부터 보수, 복원하였으며 1997년에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화성행궁을 탐방한 안동팀은 날씨가 더워 에를 먹고 있을 때 권오진씨(전 안동시보건소장)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제공,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해주었고, 권오섭 대중회 사무부총장은 리무진버스가 휴게소에서 잠시 쉬는 동안 술안주로 닭발편육을 제공해서 각각 많은 박수를 받았다. 권영준 두 고문은 안동팀이 안동에 도착하자 저녁 식사로 시원한 냉면을 사서 박수를 받기도 했다.

보도부장 권영진

마·창·진 안동권씨 제72차 정기총회



축사하는 권중호 전 마산합포구청장

마·창·진 안동권씨 제72차 정기총회가 5월 26일 마산 아리랑 호텔에서 종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권태형 회장은 먼저 그동안 마창진 종친회 발전을 위해 애쓰신 종친회 권경업 회원과 권문발전회 권오섭 회원에게

는 공로상, 청장년회 권영봉 직전회장에게는 감사패를 각각 수여했다.

권태형 회장은 인사말에서 마산·창원·진해 약칭으로 마·창·진 종친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과 화합으로 힘차게 권문의 기상을 바로 세워 드높이 하고 말했다.



권태형 회장(오른쪽)

이번 정기총회는 유례없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예전보다는 훨씬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권중호 전 마산합포구청장이 전화 등을 통해 숨어 있는 안동권씨를 찾아내는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권태형 회장을 비롯하여 권오수 준비위원장과 권재천 사무국장 그리고 권규현 재무국장 등 임원진들의

노력도 컸다.

또한 종친회 산하 권문발전회 권명구 회원은 정기총회 전 과정에 대한 사진 촬영을 담당하여 정기총회를 더욱 빛나게 해 주었다.

권태형 회장은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픈 몸도 돌보지 않고 열정적으로 애족심을 발휘하여 정기총회를 이끌어 주변사람들을 놀라게 했다.